

# 도 6차산업 인증사업자 전국 1위 수성

### 유관기관 협력체제로 상품관리 등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 기대

전북도는 2017년도 4/4분기 6차 산업(융복합사업) 인증 사업자로 도내 8개소 6차산업 경영체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6차 산업 누적 인증 사업자가 215개소로 전국 1위를 수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는 2017년도 4/4분기 6차 산업(융복합사업) 인증 사업자로 도내 8개소 6차산업 경영체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6차 산업 누적 인증 사업자가 215개소로 전국 1위를 수성했다고 8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농촌지역 소재여부, 융복합 여부,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 등이 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업체는 6차산업 인증포시 제품 부착,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우수 사례경진대회에 등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한,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 등 사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도내 유관기관(생물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상품 품질관리 및 유통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6차산업과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정읍시 발전위해 혼신의 노력할 터”

김원기 전 국회의원 정무비서관 김석철씨 시장경선 출마 선언

김원기 전 국회의원 정무비서관 김석철씨 시장경선 출마 선언



유치, 도시가스 공급 등 굵직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분이 일부 세력의 음모와 모략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정읍의 병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경험을 동력으로 젊은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포근한 복지를,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부모님들에게는 질 높은 자녀교육을 제공하고, 우리 고장 정읍이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김씨는 KBS 기자, 민주당 정읍지구당 사무국장, 김원기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기업체임원을 역임하면서 현재는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석철씨는 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난 8년 동안 정읍시 발전을 위해 시정의 중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김생기 시장님께서 부득이 사임하게된 것을 당원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정치적 스승은 김원기 의장님이다."고 말하고 "정치 노선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을 것이며 KTX 정읍역 정차, 첨단방사선연구소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전기안전 현장지원반 발대식을 강원도 강릉시 강원동부지사서에서 개최한 후 황용현 안전이사와 임직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 무주군 1단계 공공근로사업 첫발

발대식 열고 사업 참여자 100여명 참여지 다져

무주군 2018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발대식이 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공공근로사업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일자리 참여지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0명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과 사업장별 운영내용 교육 등의 시간을 함께 했다. 참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실질근무에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호구 착용 또한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이 제 역할을 해줘야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이 완성될 수 있다"라며 "우리 군민들이 먹고사는 일 때

문에 속상하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하시기 않도록 군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0명은 3월 30일까지 6개 읍면에 대한 환경정화사업과 서비스 지원 등 45개 사업장에서 종사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 담당은 "이번 사업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접수안내 및 홍보요원)으로 6명을 선발, 6개 읍면에 배치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에서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주민 편에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서민 피말리는 불법사금융 정조준

전주시, 내달 2일까지 대부업체 실태조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만전

전주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주시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현황 △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 대상 대부업체는 26일까지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대부업체 실태조사 기간 중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이율 초과(27.9%) 등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법정최저금리 인하의 여파로 인해 각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주시 경우는 반대로 지난 하반기에만 13곳이 늘어나 현재 100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김봉정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장은 "대부업체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무분별한 광고 등이 늘어날 수 있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여야, 개헌·정개혁위·사개혁위 이비주 구성 착수

여야는 오는 9일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금주 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2월 임기국회 일정도 금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새해 첫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뉴시스

박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내일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과 소위 구성 등 특위 활동이 착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2월1일보다 당겨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번 주말에 수석들 회동을 가지고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